

지역 소식통

부안군, 모바일 헬스케어 대상자 모집

부안군보건소는 2022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대상자를 다음달 2일부터 보건소 3층 건강상담실(063-580-3047, 3801)에서 모집한다.

모바일 헬스케어란, 건강검진 결과 질환으로 가기 전 단계로 혈압·혈당이 높거나 복부비만, 중성지방, 높은 콜레스테롤 등 만성질환 위험요인이 1개 이상 가지고 있으며, 보건소 판단하에 상대적으로 건강위험요인이 많아 시급히 예방관리가 필요한 사람 또는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장비나 인력을 지원하여 관리하는 공공형 ICT사업이다.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신청은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 중인 사람이나 이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받은 주민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안 군민이나 부안 관내 직장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체육·관광시설 조경수 관리 '총력'

정읍시가 내장산문화관광 등 체육·관광시설 내 조경을 아름답게 하는 한편, 쾌적한 조경환경 유지 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다.

시는 조경시설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명품도시로 가꾸어 간다는 계획으로 지난해 '조경시설 관리 전담 TF팀'을 신설했다.

조경시설 관리 TF팀은 내장산문화관광 등 지역 내 체육·관광시설 약 112,823㎡ 면적에 소나무와 이팝나무, 벚나무, 철쭉 등 40여 종의 수목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히,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상이변으로 인해 조경수의 병해충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병해충 예방과 방제 강화를 통한 건강한 생육환경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TF팀은 사업비 4천만원을 확보하고 체육·관광시설 내 조경시설을 중심 집중 방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회전교차로 '명품 소나무' "소멸도시 정읍 씻겠다"

고창군,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공모사업 선정

고창군청 앞 회전교차로에 고창군민들의 굳센 기상을 담은 명품 소나무가 심어졌다. 27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공모사업(문체부 주최, 한국공예디자인 진흥원)'에 선정돼 고창읍 중앙로에 소나무를 활용한 명품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다.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안정화 작업이 마무리되면, 모양성·무장음성의 성벽을 응용한 태극문양 성벽 조형물이 불려를 장식할 예정이다. 군청 앞 멀구슬나무, 한옥정자 근민정과 함께 어우러지며 기품있는 모습이 기대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진흥원 전문가 컨설팅, 조경 전문가 자문과 함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달까지 회전교차로 환경조성과 군청 심터조성, 가로환경시설물 개선 등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고창군은 소나무의 도시다. 수령이 800년된 반송인 천연기념물 선운사 장사승은 물론, 구시포·동호 해안가에 병풍을 둘러친 울창한 송림은 방풍림 등의 기능을 했고, 고창읍성·무장읍성에선 수백년된 소나무들이 백백하게 세워져 군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소나무는 고창군을 상징하는 나무로 군목(郡木)이며, 도시 가로수 역시 소나무다.

이학수, 민주 정읍시장 경선 1위 쾌거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당내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이학수 예비후보가 27일 정읍시청 브리핑실을 찾아 "시민과 당원의 기대를 엄중히 받아들여 준비된 시장으로서 반드시 정읍발전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함께 경선을 치른 최도식·최민철 예비후보와, 이에 앞서 경쟁을 펼친 유진섭, 김민영 후보에게는 감사와 위로의 말을 전함과 동시에 같은당 시·도의원 후보자들과 원팀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이날 회견에서 "시민중심의 문화·생명 공유도시 정읍을 비전으로 정읍발전을 견인하겠다"라고 밝히며, 구체적으로는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만들어 지역 청년들의 정착을 돕고, 농촌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살리는 실용

정책을 통해 정읍경제를 되살리는 한편 여성과 이주민, 어린이,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고른 복지정책을 펼 것"이라고 재차 약속했다.

또 "정치의 본질이 민생"임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고 강조한 이 예비후보는 "독단적이지만 양면성, 공격적수성을 가진 시장으로서 시민과 함께 정읍의 미래를 설계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이 예비후보는 "정치를 시작한 후 지난 20년 동안 쌓아온 지방중장기정책과의 탄탄한 인맥과 도의원 8년의 경험이 이런 실용정책을 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영중 호남고 전주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이 전 의원은 2차례의 전북도의원 시절 농산업경제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거쳤으며 현재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과 국무총리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등의 다양한 경험으로 실용경제에 밝다는 평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임대료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최대 50% 감면... 나눔 분위기 확산

정읍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추진한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고, 매출 감소를 겪는 소상공인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안이다.

지난 15일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정읍시 시제 감면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시는 5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건축물 재산세 감면 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감면 대상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소상공인 등의 임차인에게 3개월 평균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임대인이다.

감면율은 실제로 임대료를 인소한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해 줄 계획이다.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이 40% 이상일 경우 50% 감면율을 적용하며, 인하율이 30% 이상일 경우 40% 인하율 20% 이상이면 30% 감면율을 적용한다.

단,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배우자이거나 직계존비속일 경우 감면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대료 변경 전후 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 이체 내역 등 임대료 인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임대인의 자발적 참여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상인회 등에 집중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세정시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녹지공간 확보·가로수 조성·유지 총력

도시 경관의 핵심 요소로 가로수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가 올해 사업비 8억3천여만원을 투입,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하고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는 우선 사업비 3억7,100만원을 들여 국도 1호선과 철보 우회도로, 시내 권역 등에 지역 특색에 맞는 단풍나무 512주를 심었다.

또 정읍 9경 중 하나인 벚꽃길에 식재된 왕벚나무 중 수형불량목 16주를 교체하고, 결실자에 1주의 왕벚나무를 보식했다.

시는 건강하고 녹음진 수목 상태 유지를 위해 연중 가지치기와 병해충 방제, 제초, 급수 관리 등 유지관리를 위한 열매로 인한 악취와 인도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열매채취 진동 수확기도 확보했다.

시는 주요 시가지에 녹지공간을 확대해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열섬현상 완화 등 기후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억8,300만원을 투입해 상동 회전교차로 주변과 연지동 청춘활력소에 녹색 삼지 쉼 2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녹색기금 공모사업비 1억2천만원 을 활용해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이



용·거주지의 숲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나눔길 조성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나눔길 조성사업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거주·이용하는 시설에 녹색공간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시설 이용자의 차별 없는 산림 복지혜택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는 5,400만원 예산으로 시민이 주도해 생활권 내 공동 정원을 조성·관리하는 향기 있는 시민정원 4개소를 조성한다.

마을 공유지 등 주민 이용도가 높은 공간에 향기 있는 꽃과 나무를 심어 마을공동체 의식 회복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의 친밀도를 높여준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지역 곳곳에서 시각적 즐거움과 함께 자연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녹지공간 확보와 가로수 노선 조성·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귀농귀촌도시 부문' 브랜드 대상 10년 연속 수상

전북 고창군이 지난 28일 오전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제2회 2022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에서 귀농귀촌도시 부문 10년 연속 수상의 금자탑을 쌓았다.

이번 시상식은 조선비즈, 조선일보, TV조선에서 후원했으며 소비자조사 및 심사위원회의 최종선의를 통해 선정됐다.

지난해 고창군은 코로나19로 서울 등 대도시의 귀농귀촌 관련 박람회와 연계되거나 취소되면서 귀농귀촌 유

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복분자, 수박, 멜론, 블루베리, 인삼 등 다양한 소득작물과 깨끗하고 청정한 자연환경이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에게 많은 관심을 받아 이뤄낸 성과다.

고창군은 지난 2007년 전라북도 최초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 37구 이상 소규모 기반조성 지원,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등 지속적인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8

년부터 귀농귀촌인을 위한 종합교육 시설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도 활력 넘치는 농촌의 신모형을 만들기 위해 4개 분야 21개 사업 총사업비 8억3,000만원으로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마을이장이 주관하는 마을환경회, 지역민과 함께하는 동아리 활동과 재능기부 등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이 화합해 조화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